

## 복막투석 환자에서 심한 체중증가로 발생한 울체 피부염 (Stasis dermatitis)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강우, 김영옥, 장윤경, 김형욱, 윤선애, 김석영, 장윤식, 방병기

울체 피부염 (stasis dermatitis)는 하지정맥의 고혈압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습진성 피부염의 일종이다. 이 질환은 주로 심한 비만이나 Budd-Chiary syndrome과 같이 하지부종을 유발하는 질환에 잘 발생한다. 진피와 피하지방층의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적혈구의 혈관외 유출에 의한 헤모지더린의 축적과 피하지방층의 경화를 초래하고 이차적으로 지방피사나 하지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진단은 조직검사에서 진피층에 섬유화, 혈관 증식, 헤모지더린 축적 등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이루어진다. 복막투석 환자는 초여과 장애로 체중 증가가 흔하게 동반될 수 있으나 울체 피부염을 야기하는 현제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연구자들은 최근 복막투석 환자에서 심한 체중 증가와 관련되어 발생한 울체 피부염을 진단하고 혈액투석으로 부종을 조절하여 성공적으로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50세 남자 환자가 양측 하지에 함몰성 부종을 동반한 종아리 부위에 심한 갈색의 과각화증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3년 전부터 고혈압성 신병증으로 복막투석 요법을 받아왔으며 최근 수개월 동안 초여과 장애로 서서히 전신 부종이 진행되고 8kg의 체중 증가가 나타났다. 정맥 혈전증을 확인하기 위해 도플러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하지정맥이나 하대정맥에 혈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부조직 검사에서 울체 피부염에 합당한 섬유화, 혈관 증식, 헤모지더린 축적 등의 소견들이 관찰되었다. 복막투석의 초여과 장애에 의한 체중증가와 관련된 하지부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혈액투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환자는 혈액투석을 시행한 후 체중 증가와 전신부종이 소실되었으며 혈액투석 시행 2개월이 경과된 현재 울체 피부염은 현저히 호전되었다.